



- 노효련
-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elf-esteem of Physical Therapists

Hyo-Lyun Ro, PT, PhD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degree of job stress and self-esteem of physical therapists as well a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Method:** This study targeted 218 physical therapists of Busan City, and was carried out from July 16 to August 6, 2009 as survey research. A structured questionnaire referring to advance researches was used as a research tool. Job stress symptoms were measured on a 5 point scale, the higher the point total, the higher the job stress.

Self-esteem was measured on a 4 point scale, the higher the point total, the lower the self-esteem. After data collection we determin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di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Reliability analysis indicated that reliability for the job stress questionnaire was 0.93 and for the self-esteem was 0.83. The average job stress score of physical therapists was 1.19 points which was not high. The average self-esteem score was 1.76 points, which was high. It appeared that the higher the self-esteem, the lower the job stress. Also, self-esteem had an influence on psychological symptoms among job stress factors.

**Conclusion:** Job stress and self-esteem of physical therapists are well-correlated and influence each other. Accordingly, self-esteem can be used as a variable for adjusting job stress of physical therapists.

**Keywords:** Job stress, Self-esteem, Physical therapist

논문접수일: 2009년 11월 3일

수정접수일: 2009년 12월 27일

게재승인일: 2010년 1월 12일

교신저자: 노효련, hyolyun2000@yahoo.co.kr

## 1. 서론

병원 종사자들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종들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직장인들보다 더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sup>1</sup>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양상은 변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실의 작업환경은 초기

물리치료실과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물리치료사들의 스트레스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sup>2</sup>

직무스트레스는 일종의 적응반응(adaption response)으로 개인에게 부과하는 외부상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로 개인의 동기나 능력에 맞는 직무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능력이 직무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sup>3</sup>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지난 25년 동안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의료비용이 800%나 증가되었다는 보고와 스트레스로 인한 경제적 총 손실이 GNP의

10%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혀짐으로써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방안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up>4</sup> 직무스트레스 연구는 1960년대에 이르러 산업심리학 분야에 그 개념이 도입된 이래 조직사회학, 경영학, 행정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스트레스가 조직 및 개인 모두에게 해로운 것으로 보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이상적인 상태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스트레스의 순기능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순기능적 스트레스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과 역기능적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sup>5</sup> 일반적으로 적정한 스트레스는 조직 구성원에게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성과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직무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누적되면 심리적으로 신경이 예민하게 되어 조직 구성원의 걱정과 불안 초조, 긴장 등을 야기하게 된다.<sup>5</sup>

개인이 스트레스 원(stressor)에 노출되어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변인(moderate variables)으로 사회적 지지, 대처(coping), 행동유형,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중재 변인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항상 일정하다기보다 사람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sup>6</sup> 스트레스의 중재변인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으로<sup>7</sup> 스스로가 지각하는 자신의 특성에 대한 느낌 또는 평가를 말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전문직 자아 개념, 직무 만족도, 적응력, 그 작업에 대한 이미지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개념이다. Rosenberg<sup>7</sup>는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가치있고 보람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있게 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함과 아울러 진취적이고도 활력 있는 삶을 전개하게 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에는 스스로를 학대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직무환경으로부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통제력을 상실할 때에 자아존중감의 커다란 상해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직업생활의 만족도는 떨어져 작업능률 저하로 인한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sup>8</sup>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좀 더 효율적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 자신과 환자에게 유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은 그 개인의 삶의 질과 조직 내에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로는 Cho<sup>9</sup>의 피로자각 증상에 대한 연구, Hur<sup>10</sup>의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효과성에 대한 연구, Min과 Cho,<sup>11</sup> Noh와 Park<sup>12</sup>의 물리치료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물리치료사의 조직문화와 직무만족도에 대한 Cho<sup>13</sup>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타 직종에 비하여 물리치료사

들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편으로 특히,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적인 측면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정도와 이들 변수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시기, 자료수집

이 연구는 부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 복지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사전에 각 병원의 물리치료실 책임자의 협조를 얻어 물리치료사의 인원을 파악한 뒤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각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으로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였다.

본 연구는 편의의 임의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표본의 수는 일반적인 상관성 연구에서 문항수의 5~10배를 권장하고 있는데<sup>14</sup> 본 연구의 경우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소 200명으로 계산된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시에서 종사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는 2007년 현재 2264명이라고 하였다.<sup>15</sup> 질문지는 234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질문지는 총 222부로 회수율은 95%이었다. 내용이 불충분한 4부를 제외시킨 21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따라서 2007년을 기준으로 한 경우 부산시 물리치료사 중 10% 가량에 해당되므로 통계적 검증력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변수인 직무스트레스는 모든 물리치료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직업 및 근무년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정도 및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단면조사연구(cross-section study)이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10문항, 직무스트레스 증상 척도 20문항,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직무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House<sup>16</sup> 및 Davidson과 Cooper<sup>17</sup>의 직무스트레스 증상 설문을 Han<sup>18</sup>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Han<sup>18</sup>의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0,79 이었다. 생리적 직무스트레스 증상 8문항, 심리적 직무스트레스 증상 7문항, 행동적 직무스트레스 증상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점수범위는 0점에서 80점까지이다.

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수준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Rosenberg<sup>7</sup>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Lee<sup>19</sup>가 번안한 것이다. 이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0.82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신의 가치, 자질, 실패감, 능력, 자부심, 만족감, 존경 등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평정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다. 이 중 부정적 문항인 3, 5, 8, 9, 10문항은 역 채점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 것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설문항목은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확인을 위한 신뢰도 분석과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각 항목별 표준과 평균값을 알아보았다.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검사는 요인에 따라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 window version 1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 로 설정하였다.

III. 결과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정도와 관계성 및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남성이 130명(59.6%), 여성이 88명(40.4%)로 남성이 많았으며,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는 108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가 86명(39.4%)를 차지하고 있다. 학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ategory	N (%)
Sex	Male	130 (59.6)
	Female	88 (40.4)
Age	20's	86 (39.4)
	30's	108 (49.5)
	40's	24 (11.1)
	Collage	68 (31.2)
Education	University	92 (42.2)
	Graduation school	58 (26.6)
	Less than 1 year	24 (11.0)
	<3 years	42 (19.3)
Carrier	3-5 years	26 (11.9)
	<10 years	66 (30.3)
	10 ≤ years	60 (27.5)
Employee	Regular employee	180 (82.6)
	Non regular employee	38 (17.4)
	General hospital	136 (62.4)
Agency	Hospital	46 (21.1)
	Clinic	8 (3.7)
	Oriental medicine clinic	2 (0.9)
	Welfare facilities	6 (2.7)
	Others	20 (9.2)
	Less than one million won	14 (6.4)
Pay	1-2 million won	120 (56.0)
	2-3million won	50 (23.0)
	More than 3million won	34 (15.6)
Coworkers	Less than 5	36 (16.5)
	5-10	28 (12.8)
	10-15	44 (20.2)
	15-20	60 (27.5)
	More than 20	50 (23.0)
	Less than 15	132 (60.6)
Patients	16-20	16 (7.3)
	20-25	22 (10.1)
	25-30	28 (12.8)
	More than 30	20 (9.2)
Treatment time	Less than 30minutes	56 (25.7)
	1/2-1 hour	150 (68.8)
	More than 1 hour	12 (5.5)
Total		218 (100)

력은 대학 졸업이 92명(42.2%)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전문대 졸업이 68명(31.2%)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4~10년 미만 66명(30.3%), 10년 이상 60명(27.5%)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80명(82.6%)으로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 종류에서는 종합병원

이 136명(62.4%)으로 종합병원 근무자가 가장 많았다.

동료수는 15~20명 미만이 60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20명 이상이 50명(23%)로 나타났다. 월평균 급여를 살펴보면 100~200만 원이 120명(56.0%), 200~300만 원이 50명(23.0%)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1인 치료사당 1일 평균 치료환자 수는 15명 미만이 132명(60.6%)로 가장 많았다. 환자 1인당 치료시간은 30분~1시간이 150명(6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분 미만이 56명(25.7%), 1시간 이상 12명(5.5%)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환자 1인당 치료시간은 30분~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2.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

설문지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신뢰도 계수는 0.93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계수는 0.83로 나타나서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3. 구성타당도 검증

직무스트레스 증상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 이후 고유값이 1.0 이상인 4개의 요인을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만 회전방식에 의해 회전을 실시하여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였다. 요인분석을 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증상은 4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 1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중 심리적 증상이며, 요인 2는 신체적 증상이며, 요인 3은 감정적 증상이며, 요인 4는 행동적 증상이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가치감, 유능감의 2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 4.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정도

직무스트레스는 0점에서 4점 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높은 것으로 본다. 이 중 신체적 직무스트레스 증상이 1.65±1.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행동적 증상(1.05±1.01), 심리적 증상(1.02±0.98), 감정적 증상(0.87±0.9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점수는 1.19±1.03점으로, 최대점수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서 물리치료가 느끼는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Table 3). 자아존중감은 1점에서 4점 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본다. 자아존중감의 전체적인 항목의 평균점수는 1.76±0.04점으로 2점 이하로 자아존중감은 대체로 높은 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가치감의 점수는 1.67±0.04점이며, 유능감의 요인 점수는 1.87±0.05점으로 유능감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2. Factor analysis

	Component			
	Psychological symptom	Physical symptom	Emotional symptom	Emotional symptom
Job stress	0.79	0.37	0.21	0.26
	0.71	0.48	0.51	0.37
	0.69	0.43	0.55	0.17
	0.69	0.49	0.03	0.39
	0.68	0.54	0.15	0.64
	0.66	0.19	-0.02	0.46
	0.66	0.34	0.05	0.54
	0.58	0.48	0.28	0.52
	0.44	0.89	0.27	0.32
	0.37	0.87	0.20	0.23
	0.44	0.79	0.20	0.42
	0.18	0.76	0.41	0.29
	0.52	0.67	0.44	0.18
	0.26	0.25	0.78	0.27
	0.15	0.50	0.69	0.19
	0.30	0.40	0.34	0.81
0.34	0.203	0.08	0.80	
0.68	0.60	0.36	0.70	
0.67	0.52	0.05	0.70	
0.56	0.55	0.12	0.65	
	Value	Competence		
Self esteem	0.88	0.37		
	0.86	0.40		
	0.83	0.54		
	0.80	0.49		
	0.73	0.38		
	0.39	0.82		
	0.48	0.81		
	0.50	0.81		
0.34	0.80			

Table 3. Job stress and self esteem factors score

Job stress	Mean	SD
Physical symptom	1.65	1.08
Emotional symptom	0.87	0.98
Psychological symptom	1.02	0.98
Behavioral symptom	1.05	1.01
Total	1.19	1.03
Self esteem	Mean	SD
Value	1.67	0.04
Competence	1.87	0.05
Total	1.76	0.04

### 5.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물리치료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간의 관련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치감은 심리적 직무스트레스 증상( $\delta=0.17$ )과 행동적 직무스트레스 증상( $\delta=0.34$ )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가치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능감은 심리적 직무스트레스 증상( $\delta=0.21$ )과 신체적 직무스트레스 증상( $\delta=0.18$ ), 행동적 직무스트레스 증상( $\delta=0.31$ )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유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적 직무스트레스 증상은 자아존중감의 요인인 가치감과 유능감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 6. 일반적 특성이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물리치료사들의 일반적 특성이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 중 가치감( $\beta=-0.17$ )은 교육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2$ 이 0.03으로 그 설명력은 아주 작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중 유능감은 치료하는 환자 수( $\beta=0.144$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2$ 이 0.02로 그 설명력은 아주 작게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중 신체적 증상은 동료수( $\beta=0.26$ ,  $R^2=0.06$ )와 교육정도( $\beta=0.18$ ,  $R^2=0.09$ ), 성별( $\beta=0.17$ ,  $R^2=0.12$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동료수가 0.26으로 교육정도나 성별보다 신체적 증상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증상은 연령( $\beta=-0.49$ ,  $R^2=0.05$ )과 근무경력( $\beta=0.38$ ,  $R^2=0.12$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증상은 연령이 적을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증상은 성별( $\beta=0.15$ ,  $R^2=0.04$ )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증상은 근무경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변수간의 설명력이 아주 낮게 나타나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IV. 고찰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물리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서 물리치료사들의 건전한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Cho<sup>9</sup>, Cho<sup>13</sup>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바로 물리치료사라는 직업군이 아주 젊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가 안동지역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Cho<sup>9</sup>의 연구에서는 5.0%, 서울경기지역의 물리치료사를 대

상으로 한 Cho<sup>13</sup>의 연구에서는 15.2%이었으나, 부산지역의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27.5%로 다른 연구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경력과 연령이 낮은 편이어서 장기적으로 물리치료의 발전과 물리치료사의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은 Cho<sup>9</sup>의 연구에서는 전문대졸이 88.7%, Cho<sup>13</sup>의 연구에서는 50.5%, 본 연구에서는 31.2%로 나타나 물리치료사의 학력이 점차로 고학력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용형태에서는 정규직이 82.6%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인원에 비하여 물리치료사들의 숫자와 치료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인하여 물리치료사들은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sup>9</sup> 직무스트레스와 관련있는 물리치료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는 Noh와 Park<sup>12</sup>에 의하면 업무량과 역할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고, 대학병원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한 Min과 Cho<sup>11</sup>의 연구에서, 물리치료를 안마나 마사지로 인식하거나, 의사의 지시에 의한 치료내용의 불만족, 열정과 실제 상황에서의 역할 갈등을 느낄 때 직업에 대한 내적 갈등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환자나 보호자들, 관리자나 동료와의 마찰, 자기계발을 위한 어려움에서 직업에 대한 내적 갈등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의료사고의 위험과 환자들을 돌보면서 발생하는 육체적인 어려움, 치료에 대한 부담감과 인간관계 등의 업무로 인하여 긴장과 탈진을 느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물리치료사들이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의 전체 점수는 0점에서 4점까지 5점 척도에서  $1.19 \pm 1.03$ 점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수준으로 나타나서 물리치료사가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ur<sup>8</sup>의 연구에서 물리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보통’ 내지는 ‘다소 스트레스를 느끼는’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히 육체적 부담과 관련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sup>9</sup>의 연구에서는 피로자각증상이 ‘가끔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대부분이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에서, 나이가 작을수록, 미혼자와 비혼연자, 음주자, 규칙적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고스트레스군이 유의하게 많다고 하였다. 근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에서,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군에서, 연봉이 낮을수록, 근속년수가 5년 이하인 군에서 고스트레스군이 유의하게 많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조무사, 간호사, 행정직, 청소부, 원무과 직원, 방사선 기사, 물리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B	$\beta$	t(p)	TOL	CD	VIF	F(p)	R <sup>2</sup>
Education	-0.23	-0.17	-2.6*	1		1	6.80**	0.03
Dependent variable: Value								
	B	$\beta$	t(p)	TOL	CD	VIF	F(p)	R <sup>2</sup>
Patients	0.1004	0.144	2.14*	1		1	4.57*	0.02
Dependent variable: Competence								
	B	$\beta$	t(p)	TOL	CD	VIF	F(p)	R <sup>2</sup>
Cowork	0.185	0.26	3.98	0.99		1.01	14.17*	0.06
Education	0.238	0.18	2.79	0.98		1.02	10.27*	0.09
Sex	0.35	0.17	2.66	0.98		1.02	9.39*	0.12
Dependent variable: Physical symptom								
	B	$\beta$	t(p)	TOL	CD	VIF	F(p)	R <sup>2</sup>
Year	-0.755	-0.49	-5.3	0.477		2.096	10.97*	0.05
Carrier	0.2773	0.377	4.06	0.477		2.096	14.14*	0.12
Dependent variable: Psychological symptom								
	B	$\beta$	t(p)	TOL	CD	VIF	F(p)	R <sup>2</sup>
Sex	-0.4	-0.2	-3	1		1	8.89*	0.04
Dependent variable: Behavioral symptom								
	B	$\beta$	t(p)	TOL	CD	VIF	F(p)	R <sup>2</sup>
Carrier	0.107	0.15	2.16	1		1	4.66**	0.02
Dependent variable: Emotional symptom								

CD: Collinearity diagnostics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TOL: Tolerance limit

\*p<0.01, \*\*p<0.05

치료사, 약사, 임상병리사, 기계기사의 순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sup>20</sup> 직장 내 직위가 높을수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업무가 숙련되며 직장 내 스트레스의 강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sup>21</sup>

자아존중감은 내적인 자원으로 스트레스와 적응 사이를 매개하며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대처하는 노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인 안녕의 지표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자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신체증상을 많이 호소하면 호소할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며,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대처하는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sup>22</sup>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전체적인 항목의 평균점수는 1.76±0.04점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한다’ 수준으로 자아존중감은 대체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요인 중 가치감보다 유능감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 연구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sup>23</sup>

Seem<sup>24</sup>은 수행하는 과업과 관련하여 본인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와 우울도는 직간접적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

을 미치며 특히,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임파워먼트가 이러한 관계에 중요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므로, 조직구성원들의 임파워먼트 강화를 통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정도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며,<sup>8</sup>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일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아져서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5</sup> 본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서는 자아존중감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중 가치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능감은 치료하는 환자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환자수가 많을수록 본인이 유능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중 신체적 증상은 동료수

가 많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남성이 영향을 덜 받고 있었으며 그 중 동료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사들은 고도의 긴장성을 요하는 업무에 정신적인 집중과 육체적인 소모를 겪고 있다.<sup>11</sup> 이로 인하여 여성들이 신체적 증상을 많이 느끼며, 동료들과의 역할분담이나 대화를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증상은 연령이 적을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적은 것은 경험과 연륜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라 하더라도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심리적 증상이 높은 것은 직무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보인다. 따라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개인적 의지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 측면이 높으므로 개별적인 책임성도 중요하지만 병원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sup>11</sup> 행동적 증상은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감정적 증상은 근무경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변수간의 설명력은 아주 낮게 나타나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및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물리치료사가 느끼는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높지 않았으며, 물리치료사들은 신체적인 직무 스트레스 증상을 가장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대체로 높은 편으로, 자아존중감 요인 중 가치감보다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직무스트레스 증상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교육정도가 높고 치료하는 환자수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경력이 높고 여성일수록 물리치료사들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는 높아지며 동료수가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물리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하여 병원차원의 체계적인 중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켜 적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 폭을 전국단위로 넓히고 대상 병원도 다양화시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Author Contributions

Research design: RO HL

Acquisition of data: RO H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ta: RO HL

Drafting of the manuscript: RO HL

Research supervision: RO HL

## 참고문헌

1. May HJ, Revicki DA. Professional stress among family physicians. *J Fam Prac.* 1985; 20:165-71.
2. Shin SG. The association of fatigue and psychosocial stress with physical therapist in several rehabilitation hospital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7.
3. Ivancevich JM, Matteson MT. Stress and work: a managerial perspective. Scott, Foreman and Company, 1980.
4.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Safety education sheet. Worker and stress 1. 2007.
5. Han YS, Lee SH. The analysis about duty attitude followed by duty stress and psychological variable of Taekwondo coach.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007;13(2):59-69.
6. Lee JM. Cause of the job stress and countermeasure. Seoul, Sungwonsa, 1989.
7.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8. Barlow R. Role of the occupational health nurse in the year 2000: perspective view. *AAOHN J.* 1992;40(10):463-7.
9. Cho EJ. A survey on fatigue awareness amongst physical therapist at Andong city in the Kyung Sang Puck Do area.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University Trained Physical Therapists.* 2000;7(1):79-90.
10. Hur YB. Job stress of physical therapist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jae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2.
11. Min MS, Cho WL. A grounded theory study on burnout of physical therapists at the university hospital.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2009;52(3):47-68.
12. Noh HK, Park HJ. A study on the burnout of physical therapist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2008;51(1):117-45.
13. Cho MS. A Study on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 types and job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is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 2008;47(3):75-94.
14. Lee SM, Lee EO. Nursing research. Seou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2005.
  15.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ompany employment trend investigation. 2007.
  16. House JS.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Glenview, Addison-Wesley Educational Publishers Inc, 1981.
  17. Davidson M, Cooper CL. Stress and the woman manage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3.
  18. Han KH. Influence of job stress perception and symptom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sharing. Jeonju University report. 2002;23:107-27.
  19. Lee YH. Relations between attributional style, life events, event attribution, hopelessness and depress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sertation of Doctor's degree. 1993.
  20. Noh SM. Factors impacting on the psychosocial health status among hospital workers. Injae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1.
  21. Kim HS, Yim HW, Lee JY et al. Influence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 depression stati of some clinical nurses. Korean J Occup Environ Med. 2007;19(2):125-34
  22. Lee MS, Choi Y, You JS. The relationship of somatic symptom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0;39(2):323-33.
  23. Lee KH, Kim G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mental health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J Kor Soc Phys Ther. 2008;20(4):43-50.
  24. Seem JH.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attributes of physical therapists on empowermen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Hanyang University. Dissertation of Doctor's degree. 2009.
  25. Han IJ. A study on the self-esteem and occupational stress of kindergarten teachers. Paichai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5.